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3년 7월 11(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조선해양플랜트과 최규종 과장(2110-4691), 박진영 주무관(2110-5623)

'13년 상반기 선박 수주량 전년동기 대비 60.4% 증가
= 엔저 등 어려운 국내외 여건을 극복하며 조선산업 순항중 =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산업협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우리나라 조선소의 선박 수주량은 전년동기(374만CGT) 대비 60.4% 증가한 599만CGT(수정환산톤수)*를 기록해 전세계 선박발주량의 36%를 차지함

* CGT(Compensated Gross Tonnage) : 투입공수, 강재사용량 등을 반영한 부가가치 환산 톤수

○ 동 기간 수주금액은 전년동기(150.5억불) 대비 22.8% 증가한 184.9억불을 기록, 엔저 등 어려운 국내외 환경을 극복하며 견실한 회복세를 보임

<표1> 세계 선박 수주량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1~6월)		
발주량(만CGT)	1,706			4,578			3,476			2,427			1,666		
수주국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수주량(만CGT)	431	855	204	1,272	2,108	617	1,428	1,158	446	794	757	463	599	657	214
점유율 %	25.3	50.1	11.9	27.8	46.1	13.5	41.1	33.3	12.8	32.7	31.2	19.1	36.0	39.5	12.8
수주금액(억불)	139.7	164.8	36.7	338.1	397.9	110.3	480.5	242.4	90.1	305.3	183.3	71.9	184.9	104.9	37.9

* 출처: 클락슨(Clarkson), 한국조선해양플랜트산업협회

□ (**발주량**) '08년 이후 조선·해운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년 상반기 세계 선박 발주량은 1,666만CGT로 전년동기(1,194만CGT) 대비 39.5% 증가해 조선시황 회복가능성을 보여줌

○ 다만, 지난해 보다 발주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1년 상반기 수준(2,285만CGT)에는 못 미쳐 본격적 조선시황 회복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제기됨

□ (**건조량**) 상반기 세계 선박 건조량은 1,973만CGT로 전년동기(2,971만CGT)대비 33.6% 감소함

○ 이중 우리나라는 692만CGT를 건조, 점유율 35%로 선두를 차지함

<표2> 세계 선박 건조량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1~6월)		
건조량(만CGT)	4,538			5,255			5,085			4,641			1,973		
건조국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건조량(만CGT)	1,528	1,315	963	1,597	1,936	978	1,617	1,992	910	1,357	1,921	816	692	675	376
점유율 %	33.7	29.0	21.2	30.4	36.8	18.6	31.8	39.2	17.9	29.2	41.4	17.6	35.1	34.3	19.1

□ (**수주잔량**) 금년 6월말 기준 세계 선박 수주잔량은 전년동월(10,932만CGT) 대비 17.4% 감소한 9,030만CGT를 기록함

* 세계수주잔량(백만CGT, Clarkson) : ('08)209, ('09)172, ('10)153, ('11)131, ('12)96, ('13.6월)90

○ 한편 금년 5월말 기준 우리나라 수주잔량(금액기준)은 1,025억불로 세계시장의 37.7%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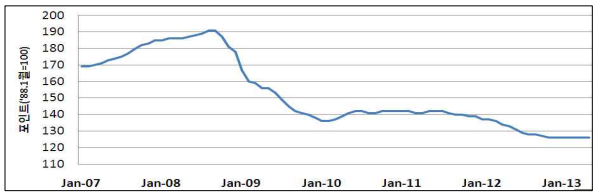
<표3> 세계 선박 수주잔량 (단위: 억불)

	탱커	벌커	LNG	컨테이너	오프쇼어	기타	합계
한국	111	43	148	183	491	49	1,025
중국	82	246	24	109	162	62	685
일본	19	195	20	11	13	26	283
전세계	265	510	191	341	1,103	310	2,719

□ (**선가**) 신조 선가지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126포인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선가바닥 가능성이 제기됨

* 新造선가지수(포인트, '88.1월=100, Clarkson) : ('08.8)190, ('08.12)177, ('09.12)138, ('10.12)142, ('11.12)139, ('12.11)126, ('13.6)126

<그림1> 新造선가지수 추이(포인트, 88.1월=100)



□ **(국내 조선동향)** 금년 상반기 국내 조선소는 탱커, 대형 컨테이너선(9,000톤급 이상), LNG운반선, 해양플랜트 등에서 수주 강세를 보임

○ 탱커는 세계 발주량 140척 중 85척을, 대형 컨테이너선은 43척 중 26척, LNG운반선은 21척 중 12척을 수주함

○ 특히 상반기 전세계에서 발주된 드릴쉽 3척, FPSO 2기, LNG FSRU 1기를 모두 우리 조선소가 수주해 해양플랜트 강국임을 확인함

*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 부유식 원유·가스 생산, 저장, 하역설비
* LNG FSRU(LNG 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 : 부유식 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